

## 나무교회

2018 03 24



### 평신도 후기

사순절 기간 새벽기도 시간에 드라마 성경 앱을 이용하여 사복음서를 함께 듣고, 읽고,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주시는 은혜도 크지만, 여럿이 함께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훨씬 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우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예수님 당시의 현장에 들어가는 듯한 생생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듣고 읽기를 마친 후, 이따금 다양한 연령대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진솔한 묵상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 멀게 느껴졌던 분들의 삶과 신앙 나눔을 통하여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듣기만을 통해서 다른 연령대의 교우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 나무교회 정경희 성도

### 목회자 후기

지난 사순절 기간 우리 나무교회에서는 새벽기도회 시간을 활용, '드라마 바이블' 앱을 통해 4 복음서 말씀을 들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 찬송을 두 장 부른 뒤 약 20분 정도 복음서 3-4 장을 들었다. 그 후 들은 말씀 중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3분 메시지를 전한 뒤 기도하고 마쳤는데 전체 30분 정도 소요되도록 했다.

사실 재작년에도 성경듣기 모임을 운영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사용한 앱에 비해 이번 '드라마 바이블 앱'은 그 집중도와 효과 면에서 확실히 달랐다. 드라마 바이블은 성우와 연예인들이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낭독한 것이기에 참여한 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복음서 중 특별히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기사에 이르면 마치 그 당시 현장에 들어선 것 같은 생동감과 전율마저 느껴졌다.

요즘 확실히 사람들이 책과 멀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장시간 활자를 바라보고 있는 일이 일상 속에서 점차 생경한 일이 됨에 따라 읽기의 효과와 집중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JSU 를 통해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함으로, 입체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바쁘고 분주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자 놀라운 공동체 경험이 될 것이다.

-나무교회 정주성 목사